

2023년 10월 8일(가해)

#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녹) 연중 제 27 주일 (군인 주일)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 안드레아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온라인(Zoom)  
 (문의 : 김우경 가브리엘라)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 교황님 기도지향 - 10월 ]

**복음화 지향 : 시노드**

교회가 모든 차원에서 경청과 대화를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 세상의 변방을 향한 성령의 이끄심에 자신을 내어 맡기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7주일이며 군인 주일입니다. 의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주님께서는 당신 포도밭인 교회를 끊임없이 가꾸시어, 가려 심은 새싹들을 자라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참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결합시키시어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기를 청하며, 또한 군인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신앙을 굳게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5,1-7  
 <만군의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의 집안이다.>

**화답송** 시편 80(79),9와 12.13-14.15-16.19-20 (© 이사 5,7ㄱ-ㄴ 참조)  
 ◎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4,6-9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복음 환호송** 요한 15,16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33-43  
 <주인은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영성체송** 애가 3,25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영성체 후 묵상**  
 “그분께서는 공정을 바라셨는데, 피 흘림이 웬 말이냐? 정의를 바라셨는데, 울부짖음이 웬 말이냐?” 이사야 예언자는 세상을 향하여 경고합니다. 주님 포도밭의 소작인인 우리는 정의와 평화라는 소출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평화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 오늘의 복음 묵상 - 정진만 안젤로 신부 ♣

포도밭 소작인

오늘 복음은 포도밭 소작인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에서 논쟁을 벌이시는 상황을(21,23-27 참조) 고려하였을 때, 오늘의 비유는 예수님의 반대편에서 그분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종교 지도자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의미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비유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비난하였으며, 예수님을 정치적 이유로 모함하여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들이 보여 준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위는 하느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둘째, 비유는 예수님의 반대자들에게 하느님의 신적 능력을 알려 주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적대자들의 시기와 모함을 받아 정치적 누명을 쓰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셔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편 118(117)편 22-23 절을 인용하여 예고하듯이,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습니다.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는 거부와 회복, 죽음과 부활이라는 주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는 이사야 예언자 시대에 예고된 바 있습니다. 제 1 독서의 포도밭 노래는 정의와 공정, 곧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기대와는 달리, 나쁜 열매로 은유된 불의와 폭력을 일삼는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과 독서는 포도밭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보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는 이들에게 하느님 나라는 약속된 선물입니다.



| 연중 제 27 주일 (군인 주일) 복음 필사 |

내 마음의 정경 한국절



'포도밭 일꾼들의 비유', 렘브란트 작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 없이 없애 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마태 21,41).

Four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 2023년 제 56회 군인 주일 담화

천주교 군종교구장 서상병 티토 주교님께서 국군장병과 이들을 위해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자분들에게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특히 지난 7월 한국에서 발생했던 수해 현장에서 봉사하였던 육·해·공·해병대 장병들과 이들을 위문하며 고통에 동참하였던 군종신부들을 기억하시고 재난 복구를 위해 신자분들의 기도와 격려를 당부하셨습니다.

**“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지 않느냐?”(루카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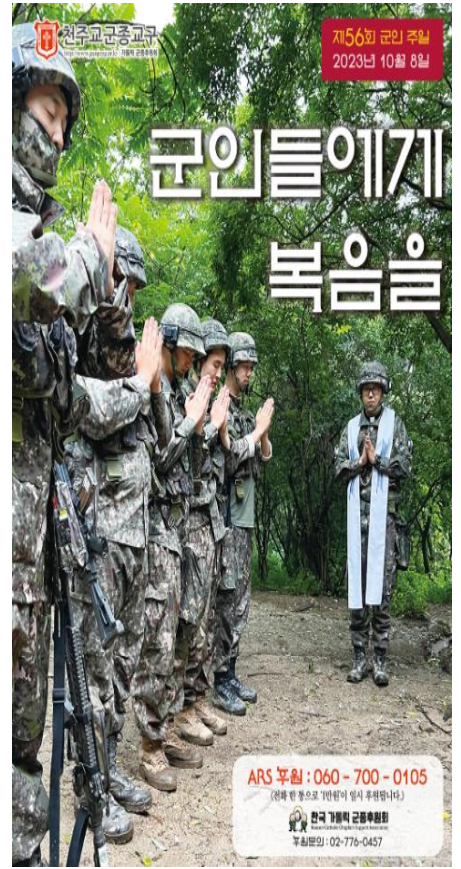
교회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선사해야 하기에 성당에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며 중장년 신자분들이 대다수인 교회의 현재 모습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심고 아플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1 코린 3,6)**

군종교구의 올해 사목지침은 ‘**선교의 열매, 세례성사!**’로 비신자를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이유에서 신앙생활을 잠시 ‘쉬고 있는 신자들’을 찾아 나설 필요가 있다시면서 특히 젊은이들로 구성된 군대 안에서 병사들을 위한 ‘영적 돌봄’은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티토 주교님께서서는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이사 48,20)**로 담화를 마치시며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1 요한 4,16)** 그리고 그분은 **“자애로우신”** 아버지시라며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과 자애가 병사들과 우리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들의 자매, 형제, 자녀들이 있는 부대에 가득하시길 간구하셨습니다.

[담화 전문] <https://www.cbck.or.kr/Notice/20230465?page=2&qb=K1200>



### 찬미받으소서 후속, 「하느님을 찬양하여라」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세계주교시노드 개막 미사가 열린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축일(10월 4일)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날 권고 「하느님을 찬양하여라」를 발표하셨습니다. 생태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후속 문헌인 「하느님을 찬양하여라」는 권고의 형태로 특히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 정치의 약한 고리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기후위기에 긴급하게 대응해야 하고, 기술 지배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를 위해 강화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며 공동의 집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책임을 언급하셨습니다. 교황님은 이번 권고에서 "하느님을 대신하려 하는 인간이 바로 인간 자신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시고,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 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기대하는 바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이번 권고의 제목을 「하느님을 찬양하여라」라고 한 이유는 권고의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pbc 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ugogPhM098w>

### 로컬 다문화 미사 안내

로컬 다문화 미사 (11월 5일(주일) 오전 10시, 아란다 성당)에서 우리 공동체는 입당 성가로 '현덕의 꽃'을 봉헌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 유튜브 링크를 통해 성가를 들어보시고 연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신자분들 연습은 10월 29일(주일) 미사 전에 있습니다. [성가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LkKNtmv5Qao>

### 캔버라골번 대교구 마리아 프로세션 안내 (개별 참례)

[일시 및 장소] 10월 22일 오전 10시 시작, 성 베드로와 바오로 대성당 (Sts Peter & Paul Old Cathedral, Goulburn)  
[프로그램 링크] <https://url.kr/ron5ut>  
※ 우리 공동체 미사는 오후 3시에 있습니다.

### 제 7차 꾸르실료 참가자 모집 안내

[기간 및 장소] 2023년 11월 30일(목) ~ 12월 3일(주일), 예수회 피정센터 (102 Mona Vale Rd. Pymble NSW 2071)  
[참가대상] 견진성사를 받은 40세 이상 70세 미만 신자  
[참가접수] 10월 13일(금)까지 [문의] 주정자 루치아





| 연중 제 27 주일 (군인 주일) 주간실천 |

**피조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⑩**

자연은 인간을 위해 희생하는 대상이 아님을 항상 기억합니다.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9CK〉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발자국 줄이기 ⑩**

겨울철 난방온도 2℃ 낮추기

→ 11,90kg의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9CK〉

🌿 우리 공동체에서는 공동의 집인 지구와 환경생태 보호를 위해 일회용 제품 사용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음식나눔, 다과 등의 행사시 개인용 텀블러를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

**안소근 실비아 수녀의 구약 종주**  
22 강 에제키엘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심판과 구원, 어떻게 두 가지를 모두 선포할 수 있을까요?

**성경과외 해주는 신부**  
[가톨릭성경통독 55 강]  
폭력적 엘리트주의자의 권력사용법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열왕기 6 부 | 1 열왕 19-22 장

**떼제(taize) 기도**

5 분만 시간을 내어 함께 기도해요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5 분 기도 -2]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요한 16,20-24)

□ 미사 참례자수

9 월 24 일	성인 68 아이 35	10 월 1 일	성인 60 아이 28
----------	-------------	----------	-------------

□ 우리들의 정성 (9 월 30 일(토)~10 월 6 일(금))

권요순	김요한	김정수	김태룡	남궁영근	손재호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지영	장호훈	전인철	조성민	주정자	황병욱	허준
교무금 \$860 (16 가정) / 봉헌금 \$400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062786 / Account Number: 000027424

□ 봉사자 안내 \* 독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김우경 가브리엘라 - 전례분과)

	10 월 8 일 연중 제 27 주일 (군인 주일)	10 월 15 일 연중 제 28 주일
독서	허준 안토니오, 김미현 보나	주정자 루치아, 이민정 글라라
예물봉헌	루카반	마르코반

- 미사 후 성당 뒷정리: (8 일) 루카반 → (15 일) 마르코반 → (22 일) 마태오반 → (29 일) 사목회
- 미사 후 친교 (매월 첫째주 식사, 셋째주 간식): (15 일-간식) 루카반 → (11 월 5 일) 로컬 다문화 미사 후 식사나눔
- 묵주기도성월 미사 전 묵주기도: (8 일) 마르코반 → (15 일) 마태오반 → (22 일) 요한반 → (29 일) 사목회

□ 미사성가 안내 \* 반주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김우경 가브리엘라 - 전례분과)

	입 당	예 물	영 성 체	파 견
10 월 8 일	439 <a href="#">부드러운 주의 손이</a>	212 <a href="#">너그러이 받으소서</a>	167 <a href="#">생명이신 천상 양식</a>	64 <a href="#">이스라엘 들으라</a>
10 월 15 일	51 <a href="#">주 나의 목자되시니</a>	510 <a href="#">주님께 올리는 기도</a>	153 <a href="#">오소서 주 예수여</a>	6 <a href="#">찬미노래 부르며</a>

♡ 김루이(Louis), 김루카(Lucas), 김루비나(Rufina), 김루시안(Lucian)의 유아세례를 축하합니다. 아이들이 몸과 지혜가 날로 자라고 하느님과 성가정의 총애를 받으며 믿음의 열매를 맺는 축복이 이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